

##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8.7)

### 1.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공포 및 시행세칙 발표 관련

#### □ [8.2 수출규제 정식 공포]

-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일본의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령(政令)을 공포함(8.2 의결, 8.7 정식 공포).
- 공포일부터 21일을 기산한 8월 28일 정령이 정식 발효됨. 일본 기업들은 對 한국 수출시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은 일본의 캐치올 규제 대상국으로 분류됨.<sup>1)</sup>
- o 단, 특별일반포괄허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수출허가방식이 적용됨.

\* 특별일반포괄허가 : 경제산업성이 CP(Compliance Program, 수출관리내부 규정)를 잘 준수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일반포괄허가보다 취득요건이 엄격함.

#### □ [시행세칙 발표]

- 8월 7일 일본 정부는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함.<sup>2)</sup>
- 개정 포괄허가취급요령에 의하면 7.4일자로 개별허가대상 품목으로 전환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외에 추가로 수출규제 대상이 된 품목은 없음.
- 한편 경제산업성은 ‘대한국 수출무역관리에 관한 취급에 대해’라는 유의사항을 별도로 발표, 특별일반포괄허가증을 보유한 기업이어도 한국 수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함.<sup>3)</sup>

1) 經濟産業省,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が閣議決定されました」(2019. 8. 2).

2) 經濟産業省 安全保障貿易管理, 「輸出貿易管理令の一部を改正する政令等について」, 웹사이트 : <https://www.meti.go.jp/policy/ampo/law09.html> (접속일: 2019. 8. 7).

3) 經濟産業省, 「「大韓民国」向け輸出貿易管理に係る取扱いについて」(2019. 8. 7). p 2.

- 첫째, 기타 군사용도로 사용(이용)되는 경우,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사용(이용)될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 수출 또는 거래의 포괄허가 효력이 상실됨.
- 둘째, 기타 군사용도로 사용(이용)된다는 의혹이 있는 경우, 수출 또는 거래시 먼저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셋째, 수출되는 화물(제공되는 기술)의 수요자(이용하는 자)가 군 또는 군 관련 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인 경우는, 수출 또는 거래 전에 먼저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 [일본 언론 보도]

- NHK는 향후 일본 수출기업이 공작기계, 탄소섬유 등 군사전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규제되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별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sup>4)</sup>
- 다만, NHK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금수조치가 아님을 강조하였으며, 기업의 수출허가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허가를 낼 것이라고 하였다.” 라는 점도 보도함.<sup>5)</sup>

#### □ [일본 기업의 반응]

- 3대 수출규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을 생산·수출하는 제조업체들은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두고 “반도체 등 다양한 회사가 관련되어 있어서, 기업 실적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고 우려를 표시함.<sup>6)</sup>

#### □ [일본 정부 입장]

-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8.2일 실시한 조치(화이트국가 제외)를 두고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다.” 고 주장함.<sup>7)</sup>

4) 「優遇措置の対象国 韓国除外する政令公布 輸出管理が厳しく」 『NHK NEWS WEB』 (2019. 8. 7).

5) 각주 4와 출처 동일.

6) 「韓国への輸出管理 日本メーカー「受注に大きな変化なし」 『NHK NEWS WEB』 (2019. 8. 7).

7) 각주 4와 출처 동일.

## 2. 한중일 외무장관회의 개최 관련

### □ [동향]

- 한·중·일 3국은 3국 외무장관회담을 8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중임.<sup>8)</sup>
- 논의 주제는 △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대응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이 회담과 더불어 중·일, 한·일 별도의 외무장관 회담의 개최도 조율중이며, 양자간의 현안 사안이 협의될 수 있도록 조정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함(NHK).
- NHK는 회담 개최가 성사되면 한국은 일본의 수출관리제도에 대해, 일본은 한국측에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하여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반복하여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함.

## 3.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 □ [미국 정부 입장]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월 5일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와 관련하여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sup>9)</sup>
- 한편 미국의 에스퍼 국무부 장관은 8월 6일 기자단에게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도록 양국에게 요청할 의향을 표명함.<sup>10)</sup>
- 또한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유지가 북한과 마주할 열쇠가 되며,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라고 하면서, 협정을 지속하도록 한일 양국에 요청할 방침임을 밝힘.

8) 「日中韓外相會議 今月下旬開催へ 日韓間の個別会談も調整」 『NHK NEWS WEB』(2019. 8. 7).

9) 「정경두 “지소미아 파기 신중 검토…미사일, 北보다 우리가 우세”」 『MBC NEWS』(2019. 8. 5).

10) 「「日韓は協定継続を」、米国防長官、軍事情報共有で。」 『日本経済新聞』(2019. 8. 7).

#### 4.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정상회담 관련

##### □ [일본 정부 입장]

- 아베 총리는 8월 6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국교정상화의 기반이 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 고 하면서 “청구권 협정을 시작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의 근본과 관련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였으면 좋겠다.” 고 함.<sup>11)</sup>
- 한편 아베 총리는 9월 예정된 UN 총회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일본의 일부 언론은 아베 총리가 한일관계에 대해 언급한 것은 8월 2일 이후 처음이며, 향후 UN 총회에서 한국 정상과의 회담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주목할 만하다고 논평함(日本經濟新聞).<sup>12)</sup>

11) 「「韓国、請求権協定順守を」、安倍首相、首脳会談に言及せず。」 『日本經濟新聞』(2019. 8. 7).

12) 「「韓国が一方的に協定違反」首相、元徴用工問題巡り批判」 『日本經濟新聞』(2019. 8. 7).